

올해 한글날을 새롭게 빛나는 말글 시대의 첫날로



박주용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문화물리학자,
『미래는 생성되지 않는다』 저자

2026년 올해 한글날을 맞아 『월간 국회도서관』에 기고를 부탁 받고 나서 필자는 짧지 않은 시간을 ‘글 구상’이라는 이름의 고민을 하는 데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국어나 언어학을 교육하거나 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말글이나 글자에 대한 남다른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노릇이기에 흔히 그러듯 한글날을 기념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글을 쓴다면 필시 많은 이들이 익히 들어보았을 흔한 몇 가지 이야기를 열거한 것 이상이 되기 어려울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의 창의성의 근원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문화물리학자’로서 창의적 표현의 형태인 문학을 물리학으로 분석해 왔고, 언어를 전공하거나 한글 자체를 연구해 온 사람은 아니지만 하루도 글을 읽지 않거나 말을 하지 않는 일이 없는 사람으로서의 경험과 이해를 함께 나누며 한글의 뜻을 되새기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언어의 본질에 있어 오늘날 LLM(대형 언어 모델, 언어 생성 AI)이 우리에게 아주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올바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힘 있는 자들이 허락하는 말글’만 쓰도록 강제당하던 시대 이후 제일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과 연관 짓는다면 더 뜻깊은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글을 만든 세종의 꿈

먼저, 한글의 창제 의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로 “나랏말싸미 중국과 달라…어리석은 백성이…”로 시작하는, 학교를 다닌 국민이라면 필시 첫 구절을 외우고 있을 정도로 익숙하게 시작하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반포문을 다시 읽어본다. 당대의 지배적인 글자, 한자를 모르는 백성을 ‘어리석다’고 한 사실이 새삼스럽게 눈에 띈다. 현대의 의무중등교육에서 이룩한 낮은 문맹률을 보면, 조선시대 글을 깨우치지 못한 계층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었는데도 글자를 모르는 것과 ‘어리석은’ 것을 동일시하던 당시의 인식의 문제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자기의 뜻을 펴고, 날마다 편리하게 쓰기 바란다’에서 세종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의 뜻과 글자가 분리되는, 세종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올 한글날부터 그 뜻을 되살리는 원년을 만들자.

당시 세종의 눈에 비친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모습’이 어떤 것이었으며, 한글로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여겼는지는 신하 정인지의 서문에서 좀 더 상세히 찾을 수 있다. 정인지의 서문에는 다음의 내용이 들어 있다.

1. 말과 들어맞지 않는 글자는 배우기도 어려우나, 들어맞는 글자는

해석하기도 쉬워진다. 그러므로 사정(꼭질)이나 실정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법의 집행도 쉬워진다.

2. 신라 설총이 한자를 빌어 우리말을 표현하기 위해 처음 만든 이두는 한자를 빌어 썼기에 혼동을 일으키는 속된(체계 없는) 글자이다.

3. 말과 들어맞는 글자는 자연과 생물의 소리(바람이나 동물의 울음소리)도 적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세종과 정인지는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없고 글의 해석이 어려워져 오해가 생기는 당시의 상황은 우리말과 지배적인 글자인 한자가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더 잘 들어맞는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물론 세종도 언급했듯 한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어리석음과 동일시하던 시대의 인식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글이 한 자로부터 지배적 글자의 지위를 차지하기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상상을 해봐도 우리 말글에서 한글과 한자의 지위 변동은 상당한 변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자어를 모두 한글로만 표시한 이 글도 읽는 데 거의 지장이 없는 것을 보아도, 많은 영역에서 한글만으로도 상당한 정도(물론 모두는 아니겠지만)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깐.

그렇다면, '내가 말하려는 바가 왜곡되지 않게 만들어 준 한글' 덕분에 '누구나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된' 작금의 현실은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의의가 완전히 실현되었음을 선언해 주고 있을까? 세종은 새 글자에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로 만들려는 희망을 담아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즉 세종은 이 글자를 드디어 사람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본 것이고, 이것을

모두가 쓸 수 있게 되는 날은 바야흐로 사람의 이야기가 사람에게 완벽히 전달되는 날이기를 빌고 빌었을 것이다.

한글은 아직도 우리의 뜻을 담고 있는가

올해 2026년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다.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한글의 나이도 하나씩 늘어나는데, 우리는 그에 발맞추어 한글을 만든 이의 바람에 맞게 더욱더 잘 사용하고, 빛을 발하게 하고 있을까. 그렇다고 말하고 싶지만 불행하게도, 교육의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불길한 소식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2025년 11월, 국내 한 명문 대학의 한 강의에서는 학생들이 LLM을 이용한 집단 부정시험이라는 물의를 일으키고 말았다. 그 직전에는 또 다른 명문 대학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음이 보도되었다. 그 학생들이 자신들의 부정 행위에 대해 얼마나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반성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등교육의 현상이 그렇다면 다른 곳이라고 다를 이유는 없을 것이며, 외국에서도 유사한 사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다음과 같은 반문이 들어오기 일쑤다. "그러한 소수의 예외적인(정말 소수이며 예외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례도 있겠지만, LLM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글을 쓸 때 도움을 주는 보조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언어 생활에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즉 "우리가 LLM을 사용해서 말을 더 쉽고 잘 하게 되는 '인간과 기계의 이상적인 협력'을 거부하거나, 우려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뜻이다.

하지만 현실은 과연 우리가 그렇게 낙관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필자는 작년(2025년), 강연차 방문했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먼저 받아야 했다. 선생님은 한 학생의作文 과제물이 인간 고등학생의 글이 아니었음을 직감하였고, 학생에게 LLM을 사용하였는지 물었다고 한다. 숙제를 시에게 맡겨서 자동으로 하게 한 것이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부인하거나 곧바로 반성하였을 텐데, 뜻밖에 이 학생은 매우 당당했다고 한다. LLM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자신은 조금의 도움만 받았을 뿐이므로 자기가 쓴 글이 맞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선생님은 학생에게 연필과 종이를 주며 그렇다면 방금 쓴 본인의 글이므로 다시 한번 직접 써보라고 하였다. 몇 분 뒤 그 학생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다. 글을 다시 써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첫 단어도 시작하지 못해서였다고 한다. 그렇다. 이 학생은 LLM을 사용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르고서 자기가 썼다고 남을 속인 것이 아니라, LLM을 사용하는 것이 진심으로 자기가 글을 쓰는 행위라고 믿으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만 것이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다시 써보라고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영영 스스로를 속이고 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 일화를 전해 듣고 있던 필자는 '자신을 표현하지 못해 눈물을 흘린' 것은 세종이 목격한 600년 전의 백성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은 한글이라는 글자까지 있는데도 또 한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이 필자에게 한 부탁이란 그 학생에게 어떻게 격려의 말을 해 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는데, 필자는 자신의 착각을 깨닫고 바로잡고 싶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자기의 글을 쓰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첫발은 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는 어쩌다가 자신의 말이 아닌 것을 자신의 말이라고 착각하는 세대를 등장시키게 된 걸까? 글자는 사람의 뜻을 전달하는 그릇이므로 그것만 만들어내면 될 것이라고 믿어왔던 훈민정음 반포문과 서문의 저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지금 모습이다. 그 이후 또 다른 자리에서, 이 경험담을 바탕으로 자기의 언어가 아닌, LLM이 만들어 낸 언어를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엔 한 신사분께서 깊은 불편감을 힘주어 참고 있는 말투로 반문해 왔다. 자신의 손자는 알파고와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알파고가 이세돌과 공개 대결한 2016년을 뜻하는 것으로 보였다. 알파고를 탄생시킨 '기계학습' 방법론은 그보다 훨씬 전에 태어났다), 학교에 다니기도 전인 나이에 컴퓨터에 돌아가는 LLM을 써서 동시를 척척 써내는 모습을 보며 자신은 시의 도움으로 손자가 남다른 능력을 가진

아이가 되었다는 사실(나중에 대문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지는 않았을까?)을 자랑스러워하며 여태껏 살아왔는데, 그것이 진짜 손자의 글이 아니라는 필자의 말에 기분이 적잖이 상하신 모양이었다.

필자는 확인하기 위해 물었다. 그 이른바 '동시'라는 것이, 손자가 LLM에 "동시를 쓰라"는 명령을 내리자 나온 것이냐고. 그렇다는 답을 듣고 필자는 되물었다. 그것을 쓴 것이 손자인가, LLM인가. 그분의 얼굴은 더욱더 붉게 굳어졌다.

인간에게 가치 있는 글을 되찾기 위하여

동시를 상상하자 이때 필자의 컷가에는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청중에게 그 아이가 썼다는 글과, 김소월의 이 시가 어떻게 다른지 질문을 던졌다. 왜 아동기를 훌쩍 지난 스무 살의 성인 남성이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엄마, 누나를 부르며 강변에서 소박하게 살자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겠느냐고 물었다. 쇠락해가는 집에서 태어나 평생 가난과 불투명한 삶의 굴레에 찌들어 살던 성인 남정네가 세상 모르고 엄마와 누나에게 투정 부릴 수 있던 어린 시절이 다시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시에 담긴 그 감정을 우리 모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겠냐고, 우리가 경험한 삶의 진실이 담겨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글이 되는 것은 아니었겠냐고.

그런데 그 아이의 것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넣어 글을 자신의 힘으로 써낸 것이 아니라, LLM에게 알아서 쓰라는 명령을 내리자 LLM이 알고리즘을 따라 일정한 확률로 만들어 낸 그림의 나열이었을 뿐이다. 그 그림은 세종의 바람과는 달리, 사람의 뜻이 들어 있지 않고 오히려 이해해야 할 사람의 사정을 기술하고 있지 않은, 한글처럼 생긴 공허한 껍데기였을 뿐이다.

언젠가 그 아이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해 준 할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글조차 LLM 없이는 쓰지 못하는 순간이 와서야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어떨까. 그렇게 된 뒤에도 우리들 사이에서 김소월 같은 작가가 또 등장하기를 바랄 권리가, 세종의 뜻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맞서 우리 말글의 뜻을 다시 되새기고 올바르게 세우는 일이 올해 한글날부터 시작된다면 그보다 뜻깊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 🌈

* 필자 주: 이 글의 작성에 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